

광주 북구 복지비 부담비율 전국 최고 라는데...

예산의 56%... 허리 혈판

재정 능력 관계없이 지방에 떠넘겨...신규사업 엄두 못내

광주 북구가 사회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복지 업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광주 북구 등과 같이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들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사회복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이어서 지자체 간 재정 격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백두중 연세대학교 교수는 21일 오전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 운용계획 지방재정조정 분야 토론회에서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배 교수는 보고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가용재원 대비 사회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비율이 매우 높아 예외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비율이 높은 지역은 2006년에 광주 북구(21.8%), 서울 노원구(20.8%), 서울 구로구(20.5%) 등이라고 밝혔다.

1인당 세출예산은 유사하지만 인구 대비 기초생보자 비율의 차이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인천 연수구가 9.4%인데 비해 광주 북구는 21.8%인 것을 예로 들었다.

광주 북구의 2007년 전체 예산은 2천 191억원이며 이중 복지예산은 무려 1천 232억원(56.2%)이나 되고, 광주 서구·남구·광산구도 복지예산이 총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자체 예산으로는 신규사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는 무관하게 국비와 지방비

분담원칙에 따라 국비 지원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구 규모나 세출 규모가 비슷해도 자체 재원 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방비 부담도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기초생보자, 영유아 등이 많은 지역의 경우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교부세·국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일부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기초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세분화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자체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주행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지방세수 9년만에 감소

종부세 등 여파...올 38조4000억원 작년비 5.7% 줄어

'종합부동산세'의 여파 등으로 올해 지방세수가 지난 98년 '환란시대'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지방세수 전망치는 전년에 비해 무려 5.7%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를 토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사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세수가 축소되면 그만큼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줄어들게 된다.

20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07년 지방세수 전망치는 38조 4천 400억 원으로 2006년 지방세수 40조 7천 400억 원보다 2조 3천 400억 원, 5.7%나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됐다.

97년 18조 4천 400억 원이었던 지방세수는 환란 당시인 98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

환돼 1조 3천 400억 원이 줄어든 17조 1천 400억 원에 그쳤다.

이후 지방세수는 증가세로 반전해 99년 18조 5천 400억 원, 2000년 20조 6천 400억 원, 2001년 26조 6천 400억 원, 2002년 31조 5천 400억 원, 2003년 33조 1천 400억 원, 2004년 34조 2천 400억 원, 2005년 35조 9천 4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2006년 들어 40조 7천 4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조 원대에 진입했다.

이로써 환란 직후 8년 연속 늘어났던 지방세수는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실거래가 양도·등록'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 ▲취득·등록세를 인하 등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시민이 지켜내는 문화공간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옛 전남도청 앞의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에 들어설 때면 언제나 두 가지 기분이 들었다.

베그덕 대는 나무바다, 낡은 테이블, 손때 묻은 LP 판 등 하나도 변하지 않은 한결같은 고마운 마음이 하나였고 가끔 주인 흔자 음 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볼 땐 '혹시 문을 닫지나 않을 까'하는 걱정이 또 하나였다.

최근 '베토벤을 살리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베살모)'을 취재하면서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과 '광주의 풀뿌리 문화는 아직도 살아 있다'는 생각.

19년 6개월 동안 '베토벤'을 지켜왔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두달 동안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했던 주인장을 일으켜 세운 건 고객들이었다. 클래식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치고 25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베토벤'에 얽힌 추억 한토막 간직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바로 그들이 힘을 보탠 것이다.

'베살모'를 만들자고 나선 것도 고객들이었고, 회원 선물을 CD 100장을 딱딱 만들어온 것도 한 단골 손님이었다. 주인 이정옥씨는 회원 모임이 시작되고 기사가 나간 후 베토벤을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에게 연락이 오고, 너도 나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며 행복해하고 있다.

지난 1935년 문을 연 '광주극장'이 멀티 플렉스의 물량 공세에도 제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 역시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전남대를 다녔던 이들에게 각인된 인문사회과학서점 '청년글방'이 수차례 문 닫을 위기를 넘기고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청년글방'의 가치를 기억하고 이어가려는 사람들 덕분이다.

'베토벤'과 '광주극장'과 '청년글방' 같은 문화공간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있어줘서 고맙은 곳' '결코 사라져서는 안될 곳'이라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들은 사라지는 게 운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과 세월과 그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낸 이런 공간들은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한 곳이다.

'베토벤'에서는 7천여원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전당 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문화도시를 둘러싼 거창한 이름의 심포지엄과 워크숍도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물론 이런 거대 시설과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광주 구석 구석 세포처럼 박혀 있는 작은 문화 공간들이야말로 문화도시 광주를 살아숨쉬게 하는 숨구멍이 아닐까 싶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을 둘러보자. 가쁜 숨을 쉬면서도 의미있는 활동들을 멈추지 않는 숨어 있는 문화 공간에 찾아가 작은 손길이라도 건네보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 F1경주장 건설 순조

7월 주경기장 착공

2010년 대회 개최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F1(포뮬러원) 경주장 건설사업이 오는 7월 착공과 함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21일 F1경주장 건설과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경주장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오는 7월 영암군 삼호읍 난전·삼포리 일대 부지에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F1 경주장 설계는 독일과 말레이시아, 중국 등 세계 각국에 건설된 30여 개의 경주장 신축 및 리모델링에 참여해 온 F1 경주장 설계 전문회사인 독일 팀게사와 국내 설계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F1경주장 기동용 봉수대 형상으로 만들고 관중석 양쪽 처마를 강조하는 등 한국의 전통미와 남도의 고유미를 반영해 경주장 자체가 새로운 관광상품이



오는 7월 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착공예정인 F1경주장 조감도. 경주장은 한국의 전통미와 남도의 고유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축기법으로 건설된다.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22일 오후 3시 도청 9층 서재필실에서 '2010년 F1국제자동차대회 개최를 위한 경주장 건설 설계역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한편, 도는 오는 2009년 말까지 F1경주장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2010년 하반기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 식품소재 구매상담회

오늘 나주 생물산업지원센터서... 농산물 판로확대 기대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가공처리한 식품소재의 판로 확대를 위해 수도권 우수식품유통업체를 초청해 벌이는 구매상담회가 22일 나주시에 소재한 전라남도 생물산업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전남도는 이날 전국적인 유통체계를 갖춘 국내 굴지의 식품소재 생산 및 유통업체, 도매상과 제과협회 등 관련단체를 초청해 구매상담회를 갖는다.

이번 상담회는 전남도와 전문유통업체인 (주)하늘엔F&B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최초의 식품소재 유통행사이며, 분야별 업체가 다수 참가해 지역 친환경농산물 판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상담회에는 서울우유, 동원산업, 헤미리마트 등과 식품 유통전문체인, 대한제과협회, 한국의 맛연구회 등 식품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전남지역 식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섭 전남도 기업홍상과장은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소재들이 판매대행업체인 (주)하늘엔F&B를 통해 이미 307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지방채 소폭 증가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채가 지난 1년 사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광주시 지방채는 9천129억원으로 지난 2005년 말 9천105억원보다 24억원 늘었다. 또 전남도의 지난해 말 지방채는 6천506억원으로 1년 전 6천139억원보다 493억원 증가했다.

이와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는 모두 17조 4천 35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9억원, 0.07%가 감소했다.

지방채는 지난 2001년 이후 연속 6년간 17조 원대에 머물면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채무비율이 급증한 지자체는 광역은 인천시 10%, 기초는 고양시 880%였고, 채무비율이 급감한 곳은 광역은 대구시 26%, 기초는 성남시 60%로 조사됐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날"입니다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

한방울의 물이라도 소중한게 사용합시다

광주광역시
물관리국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교육센터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실용화지원센터